

WCPFC 공해 승선검색 작업반 회의(3차)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5.8.7(목) 08:00~11: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NGO 등 약 50명
- (개최배경) '24년 총회에서 공해 승선검색 수행 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 개발을 위한 회기가 과정을 진행할 것이 합의되었음

□ 주요내용

- 회원들이 제출한 5개 문서들이 검토되었음: DNA 샘플링(호주), 어획물 중량 추정(프랑스), 사진 및 녹화 증거(캐나다), 부수어획 저감(뉴지), 측정 도구(호주)
- 일본은 DNA 샘플링 시 선박측 증인의 보장에 관한 문구를 제안하였고, 샘플링 결과가 선박의 이행상태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검색보고서에 샘플링 결과가 기국에 곧 전달될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문구를 제안하였음
- 한국은 HSBI CMM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을 상기시키며, 검색관들은 어종 식별에 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샘플링은 육안으로 식별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검색보고서에 샘플링이 불가피했던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문구를 제안하였음
- 중국은 로그북 기록과 검색관의 중량 추정치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제시하였음: 1) 이전 항차의 어획물이 여전히 어창에 있을 수 있음 2) 전재 또는 하역 시 (시장가격, 어창 공간부족 등으로 인해) 모든 어획물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음 3) 검색관과의 소통 과정

에서 오해 발생 4) 같은 어종도 어류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상이한 밀도로 적재될 수 있음

- 의장은 불일치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미보고 등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임을 언급하였고, 중국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선박과 검색팀 간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음
- 일본은 적재 밀도는 어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선어 참치연승의 경우 어창에 있는 찬 바닷물로 인해 어류 미수를 파악하기 어렵고, 품질 저하 우려로 인해 어류를 밖으로 꺼낼 수도 없으므로 프랑스가 제안하는 중량 추정법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언급하였음
- 2차 회의(6.26) 이후에 다국어 질문지 개선에 관한 추가적인 회원 의견이 없었음. 중국은 중국 선박에 승선검색하는 회원들이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호주와 뉴지가 좋은 질문지들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향후 작업 계획

- 다음 주 초까지 현재까지 받은 의견들을 반영한 새로운 버전을 게시하고, 이것에 대해 8.29까지 추가 의견 제출 가능
- 8.29까지 받은 의견을 담은 버전을 9월 초에 TCC 회의 문서로 제출하고, TCC 회의에서 회원들은 추가 의견을 낼 수 있고, TCC 회기 내 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할 수도 있음